



‘기억과 경험의 전이’를 통한 선미촌 재구성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

전주 성매매업소 집결지 - 선미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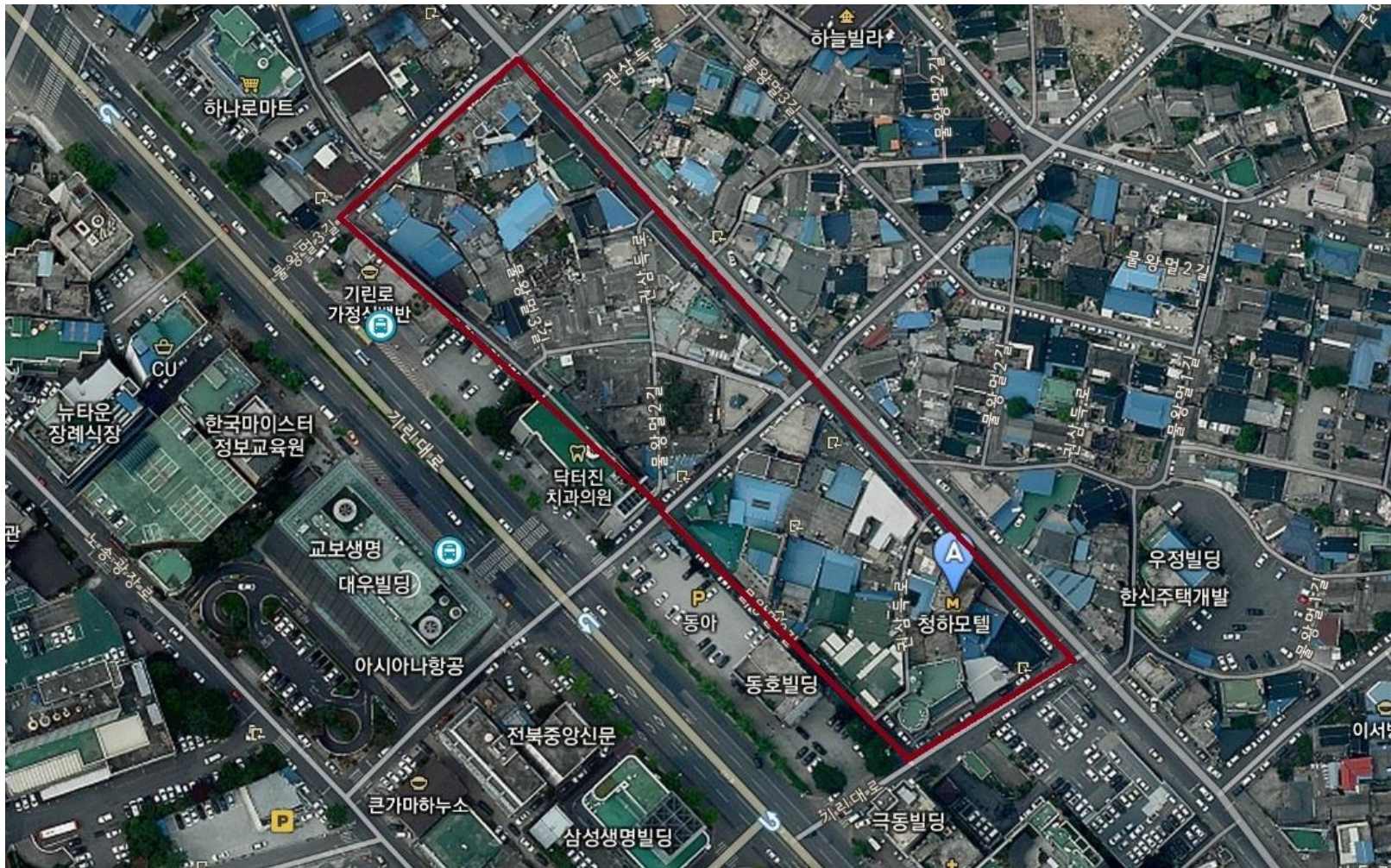


- 전주 중심부 서노송동에 위치, 주변에 시청(과거 전주역사), 대형마트, 학교, 경찰서 등 있음
- 40여개 업소, 여성 50여명 (2004년 이전 80여개 업소, 300여명 여성, 성매매방지법 이후 60여개 업소 100여명)
- 업주조직 : 선미촌진흥위원회 (구, 정화위원회)
- 등록형태-무등록
2002년 개복동 화재참사 후 숙박업 허가 취소됨

아주 오래된 집결지' 무엇이 문제인가?

- 일제강점기 유곽으로 시작하여 미군 위안소로 변화되었다가 맥양집 유리방 등 형태로 각 지역사회에서 10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곳
- 성매매에 대한 오래된 통념이 재생산되는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공간
-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공간
- 여성차별적인 남성 성문화를 실천하는 남성들만의 공간
-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사법적 행정적 무법지대
- 건물주와 알선업자들에게는 불법적인 고소득 보장

전주시 서노송동 선미촌



선미촌의 역사

일본 식민지 시대 유곽에 뿌리를 두고 있음.

1930년대 전주부 소세이초에 유곽 5개, 여성 50명 정도 있었음.

해방 이후 미 주둔군을 위한 위안소로 잠시 변모했다가 한국전쟁 이후 1960년 경 전주 기차역(현 시청 자리) 너머 서노송동으로 일부 이동하였음.

선미촌 여성 인권 현실

- 업주의 성매매 알선 및 강요
- 선불금빚, 일수 등 사채빚, 홀복과 화장품값 등 이중 삼중의 채무
- 심리적 감시와 감금의 현실
- 30센티가 넘는 신발, 낮밤이 바뀐생활,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약물에 노출된 건강문제
- 건물의 노후와 두꺼운 커튼 등 화재발생시 안전의 문제
- 성구매자들에 의한 폭력
- 숙식비 및 각종 지출로 인한 경제적 착취
- 여성들에 대한 낙인

선미촌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활동

- 2002년 6월, 현장상담소 개소 후 현재까지 현장방문상담 진행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 선미촌 여성들에 대한 법률, 의료, 심리치료, 주거, 직업훈련비 지원
-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 2006년부터 2016년 까지 지속적으로 '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선미촌에 대한 전주시민 의식조사 사업을 진행, '응답자의 83.3%가 선미촌 폐쇄에 동의한다'는 결과 발표
- 2008년 행정에서 단계적 매입에 의한 폐쇄 계획 수립하였으나 시의회에서 전체매입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결됨



아주 오래된 집결지
지역주민이 '생태계'로
모두 얹혀있음



‘행복한거리’로 만드는 상상



거리로 나서면 성매매 업소로 즐비했던 거리가, 마을과 마을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공동체의 거리로 탈바꿈 했다.

기존의 성매매 업소는 공동체의 노력으로 폐업하거나 전업을 해서 '행복한거리' 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음식들과 이야기 그리고 놀이마당으로 채워졌다. 이곳에는 한때 성매매여성으로만 불렸던 여성들 몇몇이 공동체 핵심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며 대안적 삶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

행복한 거리를 찾는 방문객들은 충분히 다채로운 내용을 경험하고, 휴식 같은 시간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은 여기서 도심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마을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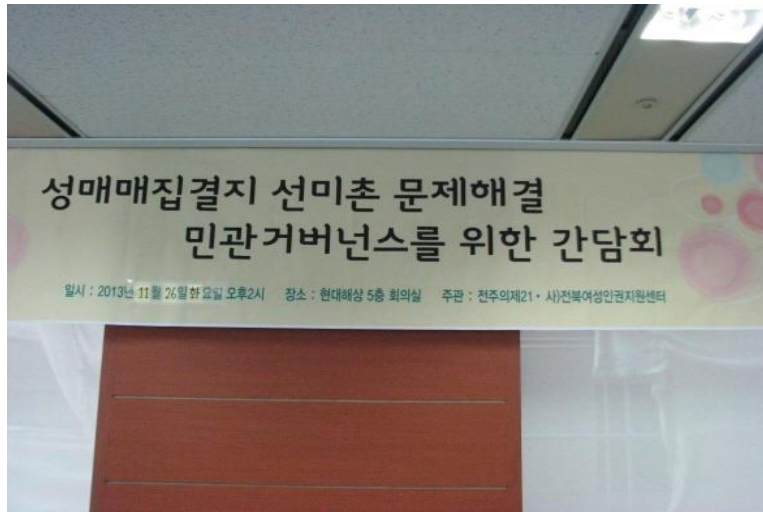
선미촌이 있는 서노송동 주민과 소통 시작



“서노송동 산다고 말 못하고 그냥 노송동 산다고 해요”
“여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살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거예요”
“옛날부터 거기 여성들 인신매매 당하고 빚지고 무서운 곳이에요 없어져야 해요”
“주민들의 고통을 이제 알았으니 주민 분들도 업소안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연대합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부터 해보자"



행정, 경찰, 정치인, 지역주민, 여성단체,
도시계획 전문가, 전주의제 등 유관기관
및 개인 25명으로 민관협의회 발족

지역사회 공론화

-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전주시장 모든 후보들에게 선미촌에 관한 정책질의하고 면담을 추진하여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함
- 모든 후보가 선미촌 폐쇄와 관련한 입장을 독자 기자회견 또는 민관협의회에 전달함
-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단속 및 법 집행 촉구
- 전주시 선미촌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민선 6기 전주시장 주요 시책사업으로 선미촌 단계적 매입에 의한 폐쇄 및 문화재생사업 추진

선미촌을 다시, 그리다



상상워크숍

전주선미촌 정비민관협의회



낮선 사람들과 낮설게 걸어보기



선미촌 뒷골목 - 도심 한복판의 버려진 공간



무너진 담벼락 안으로 드러난 흔적



선미촌 낮에 걷기 “이곳은 붐 터있는 공간 같아요”



예술가, 사회경제 분야 관계자, 문화기획자, 건축가, 마을만들기 활동가, 대학생 등과 걷기

선미촌 경험여성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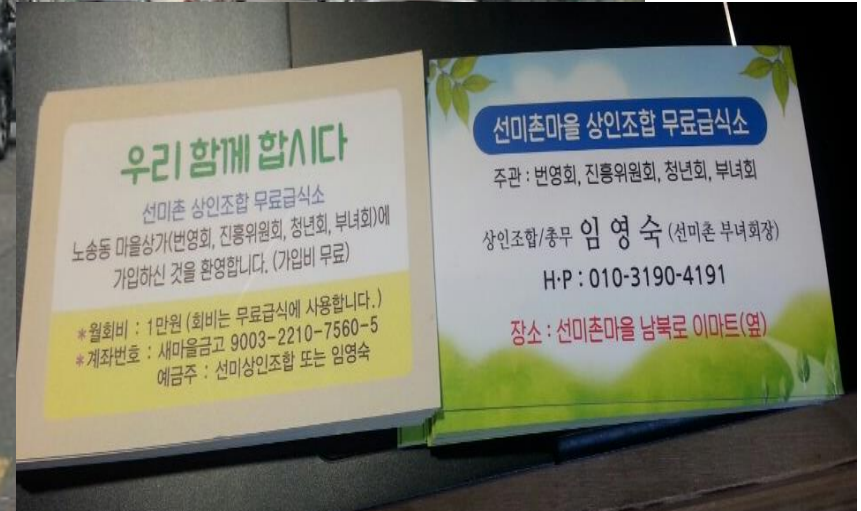
“ 나 솔직히 여기 공원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 없앨거 같으면, 건물이 낡고 위험하잖아, 여기는 불이 안나서 그렇지 불나면 여기도 훔탈걸 그냥. 사람들도 오고 가면서 쉴수 있게끔, 나는 전주 살면서 여기가 중심으로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공원벤치가 되든지 나무에 둘러 쌓여 잔디밭에 둘러 쌓여있던 ..요즘에 내가 앉았을 거야 하고, 아니면 다른 친구들하고도 와서 그냥 이렇게 산책 삼아 걸어서...”

(H 3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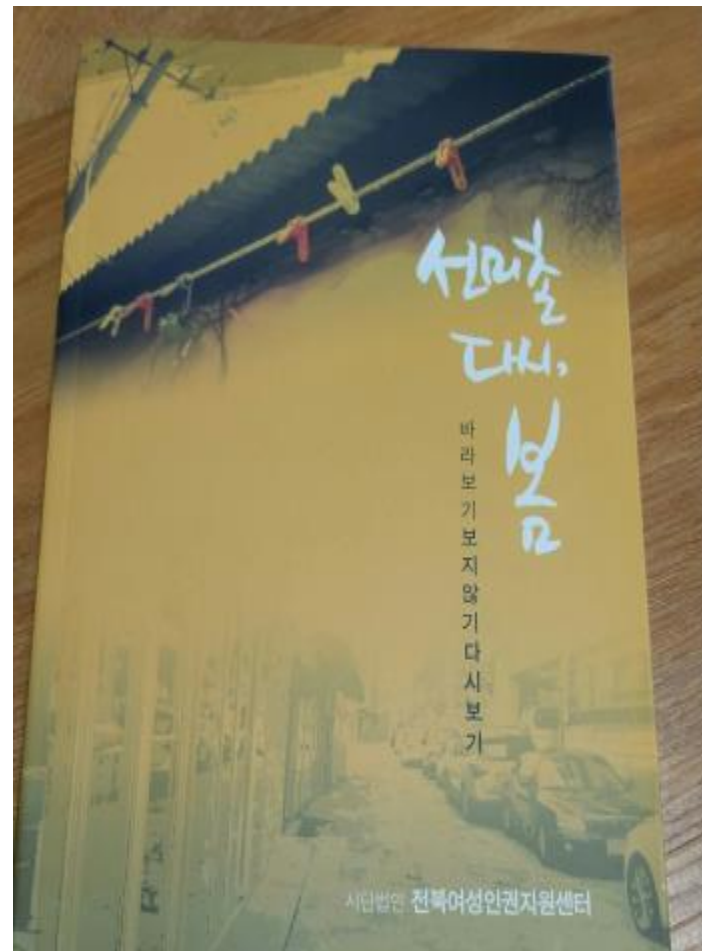
선미촌 경험 여성 인터뷰

- 성매매가 불법이고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빨리 없어져야 하고 변화가 필요하다.
- 선미촌에 있는 여성들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
- 의료지원이나 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 이외 주거지원이나 정착지원금 필요하다.
- 이곳에 여성인권과 자활을 지원하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선미촌 업주들의 대응



선미촌 다시, 봄 - 선미촌 이야기수집



여성인권플랫폼 여행길



선미촌 기록과 기억을 위한 아카이브 작업



전시회 - 아주 오래된 의자



요코하마 코카네쇼 방문

- 마약밀매 등 범죄, 성매매업소 200여개가 있던 집결지
- 2003년 지역주민 발의로 행정, 경찰, 학교등 협의체 만듦
- 2005년 경찰의 바이바이작전으로 업소 폐쇄
- 2007년 요코하마시 창조도시사업으로 예술작품 전시, 워크숍 등 매년 개최
- 코카네쇼 바자, NPO 코카네쇼에리어매니지먼트센터 설치 운영
- 업소는 요코하마시가 건물주로부터 매입하여 후 에리어 매니지먼트센터에서 예술가들에게 저가임대, 리모델링하여 공방 및 갤러리 활용







기억과 경험의 전이를 통한 선미촌 재구성

■ '선미촌'의 재구성 방안

"기존은 촌락을 기다리며 앉아 있는 방식이지만
그대는 친구와 산책하며 걷다 걸터而坐를 취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선미촌 마을 만들기위원회, 선미마을마을위원회-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상의 삶이 존재하는 공동체로

시티가든 - 인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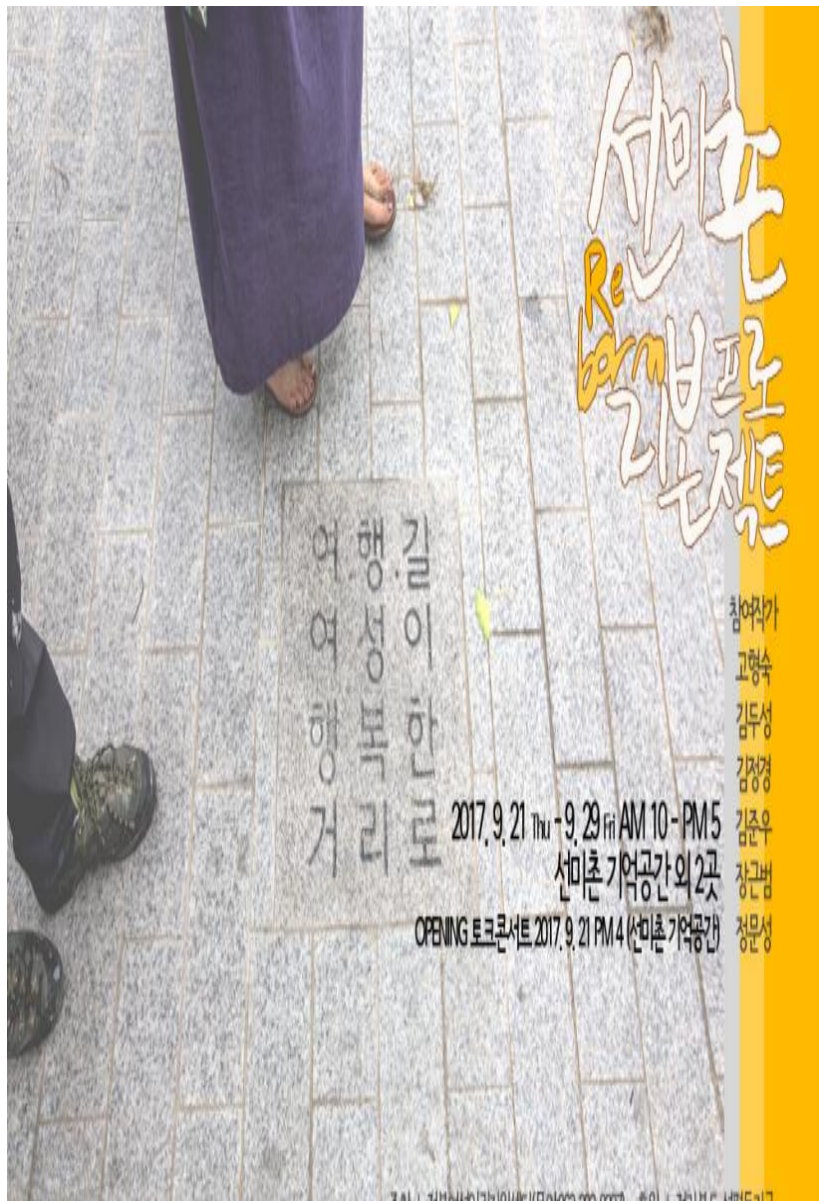
시티가든 - 기억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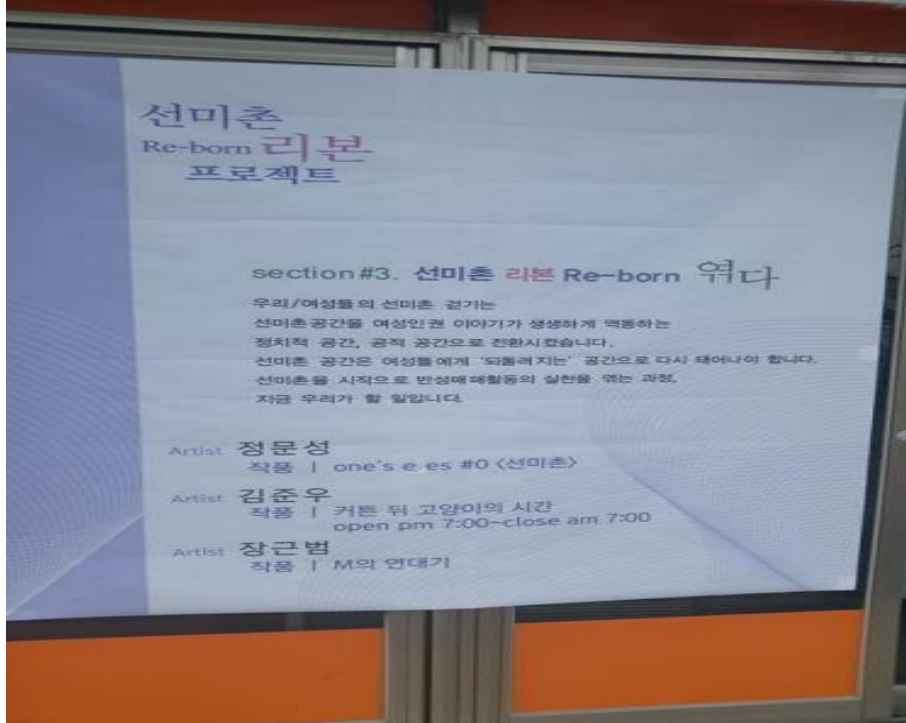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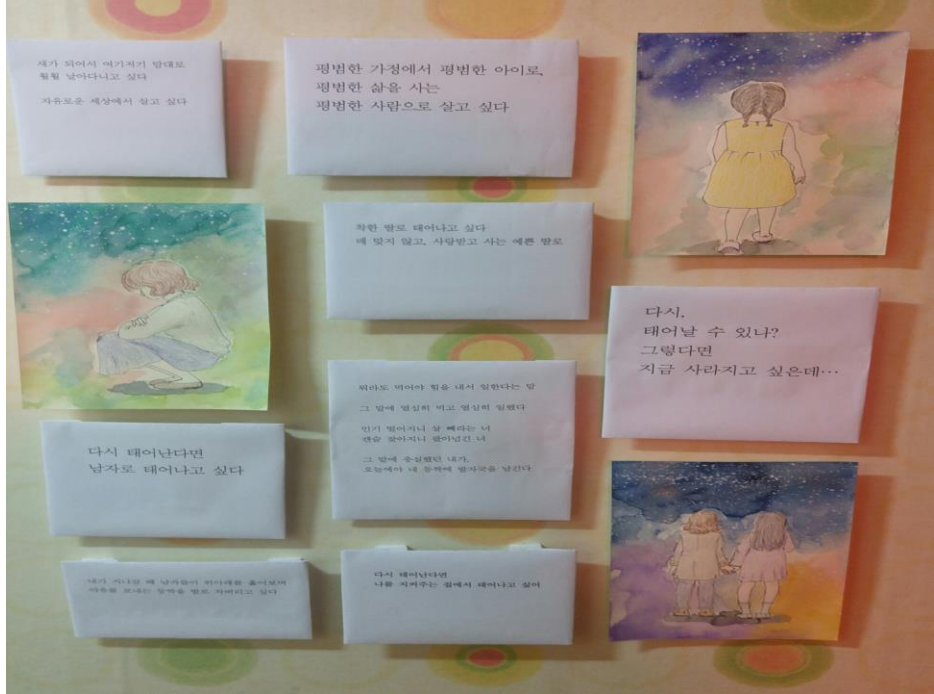
현장시청 설치와 여성자활지원조례 제정











대구 1909 자갈마당 기억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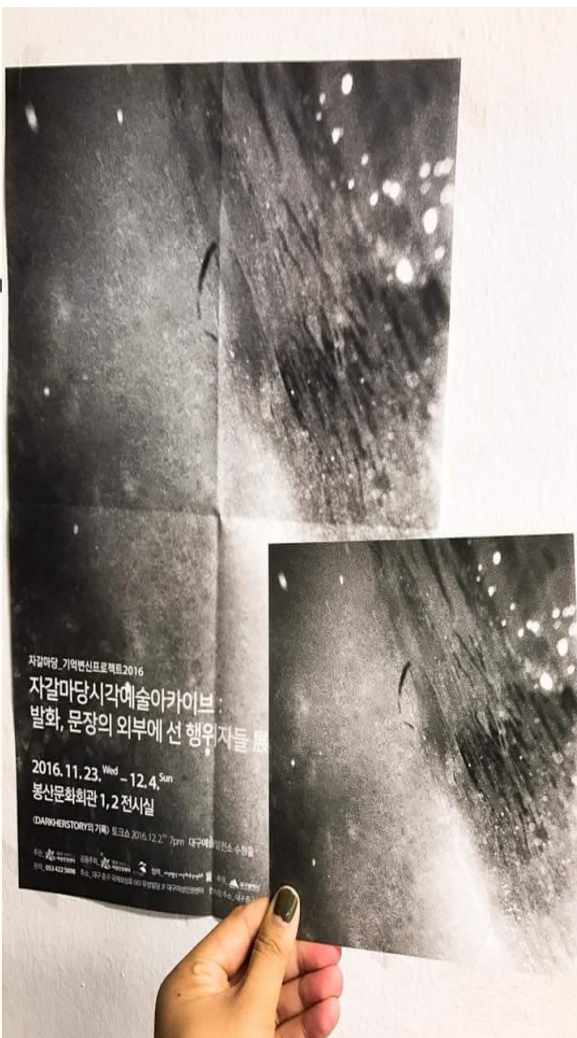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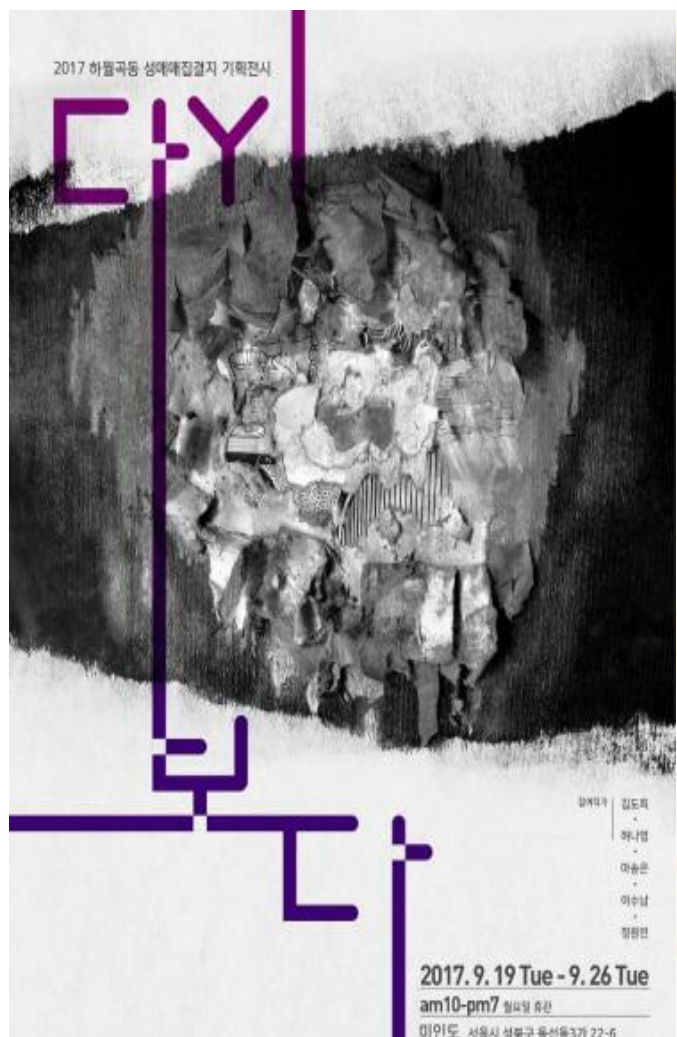
자갈마당 기억정원 아트 스페이스



일본군위안부역사관 희움



우리가 성매매 집결지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이유



우리가 성매매 집결지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이유

“충실한 기록, 꾸준한 탐색을 통하여
과거의 어둠과 망각의 역사로부터 집결지를 끌어내고,
정의, 희망, 여성/인권과 같은 새로운 미래의 가치들과
연결시키는 작업”

-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변정희

선미촌 집결지 해체와 지역의 재구성

- 전주시 도시재생과 내 '서노송 예술촌 팀', 현장시청 설치
- 전주시와 경찰, 검찰 등 공조 : 지속적 순찰 및 단속, 여성 인권 보호, 업주와 건물주 처벌, 행정에서 건물주에게 성매매장소 제공 불법이며 처벌 대상인것을 지속적으로 고지함
- 선미촌 내 건물 및 공폐지 매입하여 '여성인권과 예술의 거리로' 단계적 문화재생 사업 추진 : 여행길 프로젝트(아트 레지던스, 아트 팩토리 운영 등), 업사이클링 센터 계획 중
- 선미촌 아카이빙 전시관 (가칭) 설치 운영 계획 : 선미촌 역사 아카이빙 학술 연구 계획
- 집결지는 기획된 공간, 성매매 여성의 고통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성, 공감, 연대의 시선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집결지의 기억을 삭제하지 않고 여성인권을 향상,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성찰적 기억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THANK YOU** 